

[나와 《결림신문》]

◎ 현준걸

# 나에게 '출세'의 길 열어주었다



▲ 저자 현준걸

80년대 초, 17살 어린 나이에 나는 농촌에 내려가 고된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농촌 청년문화활동에 참가하고 우리 촌 신문주문호들의 신문배달을 책임지면서 《결림신문》과 접촉하게 되었다. 후에는 고중시절 담임이었던 량정길선생님(그 당시 훈춘시인민

방송국 편집기자로 전근되었음)의 도움으로 신문과 방송에 통신보도를 쓰기 시작하였다.

1985년 결림신문사 편집기자가었던 리원철선생님의 도움으로 《결림신문》과 인연을 맺고 많은 신문기사를 투고하였다. 비록 어수선한 기사들이었지만 많은 편집기자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논농사에 폭 재미 들어>, <신흥촌 빛난가리 낮아진다> 등 적잖은 기사들을 신문에 발표하였다.

신문과 방송에 내가 쓴 글들이 발표되면서부터 동네 사람들은 내 글이 실릴 때마다 칭찬해주었고 하다 문향당위에서는 나를 1986년도 전향 우수통신원으로 표창하면서 만년필과 침대보를 장려해주기도 하였다. 1987년 8월에는 하다문향 하산소학교에 대리(代課) 교원으로 추천받아 자랑스런 인민교원으로 되었다. 1989년 가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촌소학교 소재지인 하산촌에서 농호마다 생산한 목이버섯을 팔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정을 료해한 나는 <우리 촌의 목이버섯을 사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서 결림신문사에 투고하였는데 이 기사가 인차 발표되면서 그 많은 목이버섯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결림신문》에 신문기사도 자주 써보내고 본직 사업도 잘하는 한편 연변대학 언어문학학부 통신학과 공부까지 하였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으로 연변대학 졸업장까지 타게 되어 대학에 못 간 서러움을 떨기도 하였다. 후에는 대리 교원으로부터 합동간부 정식 편제로 넘게 되어 날 듯이 기뻐다.

2008년 2월에는 량수진중심소학교에서 도문시사법국 량수사업소에 전근되어 사법계통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법계통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나는 필을 놓지 않고 《결림신문》에 조야사회, 조해사업, 안치방조사업, 법률선전 등 여러 면의 보도기사들을 많이 써보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생전에 투옥중인 아들 만나게 해줘서 고맙소!>라는 제목으로 《결림신문》에 발표된 기사이다. 간암말기로 림종을 앞둔 량수진의 꼭모모 로인이 연길감옥에 투옥중인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량수진 사법소에 반영하였는데 사법소에서 이를 도문시사법국에 반영하였고 연길감옥과 연계했더니 연길감옥에서 즉시 차를 내어 모자간이 만날 수 있게 해준 감동적인 사연을 다룬 내용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글을 써서 《결림신문》에 투고하고 신문과 꿈틀레야 꿈틀 수 없는 인연을 맺어오면서 느낀 바가 있다. 바로 《결림신문》이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고 《결림신문》이 나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어 지금까지 빛나게 걸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결림신문》의 변명을 두손 모아 기원하는 바이다.

## 연길 꼬마 배구선수들, 전국대회서 우승 차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내몽골 오르도스시에서 진행된 2025년 전국유소년배구선수권대회 및 청소년하계캠프(서북지구)에서 연길시청소년과외체육운동학교 배구팀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여자 갑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가체육중국 배구운동관리중심과 중국배구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이번 대회에 연길시청소년과외체육운동학교는 2012-2013년령대 선수 14명으로 구성된 여자 갑조 대표팀을 파견했다. 생기발랄한 이 팀은 코칭스태프의 세심한 지도 아래 기술 전술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강호들이 운집한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자신만만한 기세로 매 경기에 도전하였다.

9차례의 접전 끝에 연길시청소년과외체육운동학교 배구팀은 굳건한 투지와 탁월한 전술 집행력으로 7경기 2:0으로, 2경기는 2:1의 압도적 성적으로 전승을 기록하며 서북지구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선수들은 땀과 투지로 연길 체육학교의 영광스러운 장을 엮었다.

이번 대회는 연길시청소년과외체육운동학교 배구 교수훈련의 풍성한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는 무대였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소중한 실전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연길시청소년과외체육운동학교는 배구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육-교육 융합을 심화시켜 청소년 배구운동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 김파기자

[전망대]

## 강적 료녕을 지혜롭게 대처하여 련승 이어가자!



제 17라운드 연변팀과 청도 흥사팀간의 경기 한 장면 / 김파기자

7월 26일 저녁 6시, 홈장 9연승으로 잠시 3위를 달리고 있는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이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12승 4무 1패로 40점을 기록하며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료녕철인팀(이하 '료녕팀')과 2025 화윤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8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연변팀과 료녕팀은 올 시즌 갑급리그에서 표현이 가장 출중한 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홈장 우세가 뚜렷한 연변팀이 현재

갑급리그팀중 유일하게 홈장 전승을 거둔 팀이라면 중원에서 전의능(연변부덕에서 활약했음)-펠리페-쿠니모토 요시히로(邦本宜裕)가 공을 통제하고 공격선에서 안의은(중국 대북), 음벤자, 장일봉이 3개의 창끝이 되어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료녕철인은 현 갑급리그 팀들 중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뽐내는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팀의 골 득실차를 살펴보면 료녕팀이 40/16으로 연변팀의 21/16을 많이 앞섰다. 하지만 두 팀 모두

16개의 실점으로 갑급리그 팀들 중 최저 실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료녕팀에서 16경기 19골, 1도움을 기록한 음벤자는 명실공히 득점왕이라 할 수 있고 17경기 3골, 13도움을 기록한 쿠니모토는 도움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팀이 료녕팀을 이기려면 우선 이 두 선수의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즉 쿠니모토를 얹어놓고 음벤자를 '특별보호'하는 방어 전략이다.

지난 경기들을 살펴보면 료녕팀의 원정경기력이 리상적이 되지 못하

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정남감련과 3:3, 소주동오와 1:1, 남동지운과 2:2로 비겼는가 하면 홈장에서 남경도시와 1:1로 비겼다는 것은 료녕팀의 수비 체계가 불안정하고 실력 발휘가 기복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경기들에서 상대팀들은 하나같이 음벤자와 쿠니모토를 분리시키고 료녕팀의 허점을 노렸다.

료녕팀은 밀집수비와 빠른 역습에 약하고 필리페가 없으면 중원 수비력이 떨어지며 음벤자와 쿠니모토, 안의은은 수비에 잘 가담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 하기에 상대가 빠른 전환으로 기습공격을 들이대면 수비선에 혼란이 생기곤 한다.

연변팀은 료녕팀의 이런 약점을 리용하여 5-3-2 또는 5-4-1 포메이션으로 수비인원을 증가하여 국부지역의 인원 우세로 공을 차단하고 이를 도망구스와 김태연의 발밑에 수송하여 역습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공 점유율보다 역습 효율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 전방에서의 세트피스를 잘 활용하여 도망구스의 정확한 후점 침투 전략으로 황진비, 김태연, 서계조(우카추쿠) 등의 헤딩슛을 유도하여야 한다.

연변팀이 홈 9연승 기세로 전반 15분의 고강도 압박으로 상대를 기죽이고 리듬 변화와 선제골로 상대의 인내심에 불을 지른다면 아무리 강적이라고 하여도 연변팀의 홈장에 와서 점수를 가져가기는 힘들 것이다. / 김태국기자

## 우카추쿠·왕성쾌,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공식 입단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21일, 선수 본인과의 우호적 협상에 프린스 러키 우카추쿠(乌卡楚克乌) 선수와 왕성쾌선수의 공식 입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카추쿠는 2003년생으로 키가 186센티미터이며 나이제리아 국적이거나 포지션은 공격수이다. 우카추쿠는 나이제리아 국내 리그에서 데뷔한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르비아 리그에서 뛰었다. 올 시즌 갑급리그 남

동지역에 입단했고 10경기 출전해 두 골을 넣었다.

1995년생인 왕성쾌는 포지션이 미드필더이며 지난해까지 두 시즌을 연변팀에서 뛰었고 올 시즌 슈퍼리그로 진출한 대련영박으로 이적했다가 다시 연변팀으로 돌아왔다.

우카추쿠와 왕성쾌의 입단은 연변룡정커시안팀의 공격선과 중원에 더 많은 도움과 전술 변화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 김파기자

朝夕奔梦

富强民主 和谐文明 自由平等 公正法治 敬业诚信 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任明兆作